

JB금융지주 — 부실 +54%, 총당금 +13%

전북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이 140.17%에서 102.71%로 내려앉았다 — 그룹 이익은 10년 최고다

- 2Q26 영업이익 3,056억원(YoY +14.5%)으로 그룹 실적은 10년 최고 구간이다.
- 같은 기간 전북은행 고정이하여신은 54.2% 늘었는데 총당금은 13.0%만 늘었다.
- 10년 환원 공시 13건이 전부 최근 3년에 몰려 있고, 희석 공시는 0건이다.

그룹 실적은 10년 최고 구간

7월 23일 공시된 2Q26 연결 잠정실적은 매출 1조 2,645억원(YoY +6.5%), 영업이익 3,056억원(YoY +14.5%, QoQ +38.1%), 순이익 2,265억원(+6.0%)이다. 1H26 누계는 영업이익 5,269억원(+8.8%), 지배주주 순이익 3,857억원(+4.1%)이다.

연간으로도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 FY2025 영업이익 9,523억원(+5.1%)은 10년 내 최고이고 순이익도 7,300억원(+5.3%), EPS 3,619원이다.

⚠ 여기서 매출은 제조업 매출이 아니다 — 회사가 공시에서 "K-IFRS 재무제표상 대응되는 계정과목이 없어 이자수익·수수료수익·기타 영업수익을 합한 수치"라고 명시했다. 자산을 늘리면 함께 늘어나는 값이므로 증가율 자체를 성장으로 읽지 않는다.

분기 흐름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다 — 2024년과 2025년 모두 4분기 영업이익만 급락했다(1,583억·1,868억, 3분기 대비 40%·34% 감소). 2026년 2분기 3,056억원은 표에 나온 아홉 분기 중 가장 크다(표 1). ⚠ 4분기 급락의 원인(총당금 반영 등)은 공시 범위에 없어 특정하지 않았다.

자회사의 자산 질은 반대로 갔다

전북은행 고정이하여신이 1,379억원 → 2,127억원(+54.2%)으로 늘었다. 반면 대손충당금은 1,933억원 → 2,184억원으로 13.0%만 늘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140.17% → 102.71%로 37.46%p 급락했다(표 2).

적립률 100%는 부실채권 규모만큼만 총당금을 쌓아둔 상태를 뜻한다. 140%대에서 102%대로 내려온 것은 부실이 늘어난 속도를 총당금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익성 지표도 함께 내려갔다 — 전북은행 ROA 0.81% → 0.70%, ROE 9.89% → 8.48%, NIM 2.68% → 2.61%로 셋 다 하락했다. 그룹 이익은 최고인데 주력 자회사의 세 지표는 모두 뒤로 갔다. ⚠ 그룹에는 광주은행·캐피탈 등 다른 자회사가 있고 이들 수치는 카드 범위에 없어, 그룹 증익이 어디서 왔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자본은 두터워지고, 환원은 3년에 몰려 있다

자본비율은 개선됐다 — BIS 자기자본비율 14.29% → 14.71%, 기본자본비율 13.64% → 14.10%, 보통주자본비율(CET1) 12.21% → 12.58%(위험가중자산 38조 7,574억원). 자산 질은 나빠졌는데 자본 여력은 늘어난 상반된 그림이다.

주주환원의 집중도가 눈에 띈다 — 10년 공시 기준 환원이 13건인데 13건 전부가 최근 3년이다(현금배당 5·주식소각 4·자기주식소각 4). 희석 공시는 10년간 0건이다. 2026년 6월 30일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3주 뒤인 7월 23일에 다시 체결하면서 같은 날 배당과 소각을 함께 결정했다(표 3).

⚠ 우리 진단에서 "부채과다 1,084%"가 켜져 있으나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고객 예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으로, 업종 임계 600%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2,999 → -9,632 → -1조 1,375억원)인 것도 대출자산 증가분을 포함한 값이라 제조업의 현금 유출과 다르다. 표 시점수는 95점(A+)이다. PER 7.97배(비교군 81사 중 20% 위치)·PBR 0.91배(52%)다.

국면 판단 이익 최고, 자산 질 악화

현재주가 (26/08/07)

28,850원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음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투자 의견·목표주가를 산출하지 않는다.

1순위 점검 지표

대손충당금적립률
(140.17% → 102.71%)

Key Data

시가총액	5.4조원
PER / PBR	7.97배(20%) / 0.91배(52%)
외국인 / 공매도 잔고	34.4% / 0.6%
BIS / CET1	14.71% / 12.58%(개선)
전북은행 ROE / NIM	8.48% / 2.61%(둘 다 하락)
위험신호 / 표시 점수	1건(은행 부적용, 주) / 95점 A+

연결 실적 및 주요 지표

구분	2023	2024	2025	1
매출액(억원, 주)	34,756	36,994	36,499	24,795(+7)
영업이익(억원)	8,000	9,061	9,523(10년 최고)	5,269(+8)
순이익 / 지배주주	6,039	6,930	7,300(+5.3%)	3,987 / 3
EPS(원)	2,907	3,439	3,619	
영업활동현금흐름	-2,999	-9,632	-11,375	-7,804
자본 / 부채(억원)	51,160 / 582,880	57,248 / 609,971	61,752 / 669,487	

매출은 이자·수수료·기타 영업수익의 합이며(회사 명시) 제조업 매출과 다르다. 부채에는 고객 예금이 포함된다. 주·p 잠정실적 공시에는 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가 없다.

표 1. 분기 이익 — 4분기만 매년 급락한다 (단위: 억원, %)

분기	2024 2Q	2024 3Q	2024 4Q	2025 1Q	2025 2Q	2025 3Q	2025 4Q	2026 1Q	2026 2Q
영업이익	2,588	2,610	1,583	2,175	2,669	2,811	1,868	2,213	3,056
순이익	2,007	1,975	1,188	1,669	2,137	2,132	1,362	1,723	2,265
2년 연속 4분기만 급락(3분기 대비 2024년 -39.4%, 2025년 -33.5%) — 2Q26 3,056억은 아홉 분기 중 최고									
1H26 누계	매출 24,795억(+7.3%) · 영업이익 5,269억(+8.8%) · 순이익 3,987억(+4.8%) · 지배주주 3,857억(+4.1%)								

주: ⚠ 2026년 실적은 외부감사인 검토 전 잠정치다(회사 명시). 2024Q4·2025Q4는 연간에서 3개 분기를 뺀 파생값이라 계절성이 아니라 계산 방식 차이일 수 있다. ⚠ 4분기 급락의 원인(충당금 추가 적립·일회성 비용 등)은 공시 범위에 없어 특정하지 않았다. 지배주주 순이익과 순이익의 차이(2Q26 69억)는 비지배지분 몫이다. 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23800585), 분기보고서(2026.03), 사업보고서(2025.12)

표 2. 전복은행 — 부실은 빨리, 충당금은 천천히 (단위: 억원, %)

구분	2024	2025	증감
고정이하여신	1,379	2,127	+54.2%
총 대손충당금 잔액	1,933	2,184	+13.0%
대손충당금적립률	140.17	102.71	-37.46%p
적립률 100%는 부실채권 규모만큼만 충당금을 쌓은 상태다 — 140%대에서 102%대로 내려온 것은 부실 증가 속도를 충당금이 못 따라갔다는 뜻			
ROA / ROE	0.81 / 9.89	0.70 / 8.48	둘 다 하락
NIM	2.68	2.61	-0.07%p

주: 이 표의 수치는 전복은행 단일 법인 기준이며 그룹 연결이 아니다 — 그룹에는 광주은행·캐피탈 등 다른 자회사가 있고 이들의 자산 질·수익성 지표는 카드 범위에 없다. 따라서 그룹 이익이 늘어난 출처는 특정하지 않았다. 고정이하여신 증가의 원인(업종·차주 구성)도 공시 범위 밖이다. 적립률은 충당금÷고정이하여신으로, 감독 기준의 세부 산식과 다를 수 있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자산건전성·수익성 지표

표 3. 자본은 두터워지고 환원은 3년에 몰려 있다 (단위: %, 백만원)

자본적정성	2024	2025	증감
BIS 자기자본비율	14.29	14.71	+0.42%p
기본자본비율	13.64	14.10	+0.46%p
보통주자본비율(CET1)	12.21	12.58	+0.37%p
위험가중자산	-	38,757,414	-
10년 환원 13건 전부가 최근 3년 — 현금배당 5 · 주식소각 4 · 자기주식소각 4 · 희석 0건			
최근 자사주 흐름	2026-06-30 신탁계약 해지 → 3주 뒤 07-23 신탁계약 재체결 + 같은 날 배당·주식소각 결정		

주: ⚠ 우리 진단의 “부채과다 1,084%”는 은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 고객 예금이 부채로 잡히므로 업종 임계(600%)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도 대출자산 증가분을 포함한 값이다. 2026-07-23 주식소각(20260723800818)은 3,759,398주로 발행주식총수 186,521,824주의 2.02%이고 소각예정금액은 1,000억원이다(기취득 자기주식, 자본금 감소 없음). 가장 최근 배당 결의(20260723800823)는 주당 314원 · 총 578억원이다(한 차례 결의분, 연간 총액 아님). 신탁계약 해지 후 재체결의 배경(규모·조건 변경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자본비율은 감독 기준 산식이며 연결 자기자본비율과 다르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자본적정성, 10년 공시 이력, KRX 시세(2026-08-07)

점점 지표

1순위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이다. 140.17% → 102.71%로 37.46%p 내려온 것은 전복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이 54.2% 늘 때 충당금이 13.0%만 늘었기 때문이다 — 100% 아래로 내려가면 부실 규모만큼도 쌓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이 지표가 반등하는지가 그룹 이익의 지속성을 가른다. 사업보고서의 자산건전성 항목으로 확인한다. 두 번째는 전복은행 NIM이다. 2.68% → 2.61%로 낮아졌고 ROA·ROE도 함께 내려가, 예대마진이 이익의 출발점인 구조에서 방향을 먼저 알려준다. 세 번째는 4분기 순이익이다. 2년 연속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30% 이상 떨어져, 연간 실적은 이 분기에서 결정된다.

고지

본 자료는 투자자문·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건의·목표주가·추정 실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모든 수치는 DART 제출 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인용했고 외부 전망치·제3자 추정치는 쓰지 않았다. 분석과 판단은 전부 자체 산출이다. 근거 공시: 사업보고서(2025.12) · 분기보고서(2026.03)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23800585) · 주식소각결정(20260723800818)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20260723000490).

한계: ① 2026년 실적은 외부감사인 검토 전 잠정치다. ② 자산 질·수익성 지표는 전복은행 단일 법인 기준이며 그룹 전체가 아니다. ③ 그룹 증익이 어느 자회사에서 왔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④ 4분기 급락과 고정이하여신 증가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다. ⑤ 은행이므로 부채비율·영업활동현금흐름을 제조업 기준으로 읽지 않았고, 우리 진단의 부채과다 신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⑥ 배당·소각의 금액 규모를 다루지 않았다.